美, 한미 해양안보훈련 강화

키 리졸브 수륙양용작전·對 잠수함전 훈련 포함

미국이 최근 일본·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해양안보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변화하는 동북아 환경을 관리하고 도발에 대처하는 연합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한국, 일본과 수차례의 정례적 해양안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 리졸브·폴 이글 훈련을 적시하면서 "본래 훈련의 목적은 특수작전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수륙양용 작전과 대(對) 잠수함전 훈련이 포함된다"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데 있어 해양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싱가포르에 순환배치 중인 연안전투함(LCS)이 폴 이글 훈련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양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라고 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수십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우리 군이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 나서는 등 해양을 무대로 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띠면서 한·미 해양안보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해양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우방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의 하나로도 해석된다.

국방부는 특히 "해양안보와 해양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적 합의가 있다"며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 한국을 비롯한 그밖의 우방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패권을 확장해나가는데 따른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태 해양전략의 3대 목표로 ▲해양의 자유 수호 ▲충돌과 강압의 억지 ▲국제법과 기준에 대한 준수를 적시했다.

/연합뉴스

뉴욕 여성시위대 "노출을 허하라" 최근 미국 뉴욕시가 가슴을 드러낸 채 호객 행위를 하는 '토플리스'(topless) 여성들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콜럼버스서클에서부터 브라이언드 공원까지 여성 시위대 300여명이 '여성의 가슴은 친가족적'(family friendly)이라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여성의 가슴 노출을 통한 성평등을 주장하는 날인 '세계 고 토플리스(GoTopless) 데이'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열린 기념 행사 가운데 하나로 기획된 것이다. /연합뉴스

中 항일승전 열병식 한국軍 파견 안한다

韓, 대일관계 의식…군참관단만 보내

내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우리 군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24일 "중국 열병식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10여 개 국가 중에 한국군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열병식에 군대를 보내지 않은 국가들은 5명 이내의 (군)참관단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당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항일'을 주제로 한 이번 열병식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열병식 개최를 공식화한 직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75명의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10여 개 국가가 군대 파견을 약속했고, 이 중 러시아, 몽골,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의 군대는 23일 열린 대규모 열병식 리허설에도 참가했다.

참가를 결정한 나머지 국가들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외신은 군대를 파견키로 한 국가 중에는 쿠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北, 김정은 불참 확정…김영남 보낼 가능성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참'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24일 "김정은은 (열병식에) 오지 않는 것 같다"며 "군대도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국정부가 이번 주 안에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 및 의장대 파견국가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들 역시 현재까지 김 제1위원장의 열병식 참석과 관련한 북중 접촉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불참' 쪽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들을 내놨다.

북한은 김 제1위원장 대신 이번에도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에도 김영남 위원장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의 열병식 참석 여부를 거의 마지막 순간에야 최종 결정점을 고려하면 그의 방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日, 아베총리 9월 3일 중국방문 보류

일본 정부는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를 전후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중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은 내달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 참석하지는 않되 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아베 총리의 방중 보류 방침에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은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열병식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11월에 필리핀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활용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中 톈진 폭발…사망 123명·이재민 6000명

지난 12일 중국 톈진(天津)항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희생자 명단과 이재민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는 24일 중국 당국이 폭발사고 희생자 123명 중 101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다며 이들의 소속과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톈진시 공안소방대, 톈진시 공안국 등에 소속된 소방대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톈진시 당국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현재까지 123명으로 이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지만, 여전히 50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에서 62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12명은 위중한 상태다. 시 당국은 이번 사고 탓에 6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 주변 주택가에는 4가구,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 탓에 주택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관리업체, 은행, 보험사 등과 협조해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은 사들이고 은행에 대출상환 독촉이나 연체이자 부과 등을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긴장하는 한반도…잇속 챙기는 아베 정권

日, 집단 자위권 행사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 박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남북한 간의 긴장 국면을 이용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재강조 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자민당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의원의 질의에 "(남북이) 대화를 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이래 처음 수십척의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며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평화안전 법제(안보 법안)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반도·러시아·중국의 동향을 생각하면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전쟁,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 평화 안전 법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